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392호 1판 (음력 11월 17일)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어등산관광단지 10년째 제자리 F1 위약금 협상 2년째 신경전

광주·전남 해 넘기는 현안사업

챔피언스필드 사용료 협상
광주시-기아 입장차 팽팽
상무소각장 활용 방안
인근 주민들 반대로 난항

광주·전남지역 해묵은 현안들이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현안이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사용료 재협상, 상무소각장 폐쇄 후 활용방안, 도시철도 2호선 유촌동 차량기지 사업이 대표적인 부진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10년 넘도록 제자리걸음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7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시민단체협의회에서 강제조정이 '사업자 특혜 제공'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지지부진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광주경실련과 참여자치 21 등 5개 시민단체와 주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시가 법원의 2차 소송 강제결정조정안을 받아 들여 특혜 의혹을 무릅쓰고라도 229여억원을 어등산리조트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에 반발하고, 시는 추가 사회공헌을 더해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4일 열릴 예정이던 7차 회의가 시민단체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취소됐다. 시민단체협의회는 "229억원은 줄 필요도, 줘서도 안되는 비용인데도 특혜 의혹을 무릅쓰고 주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참여 보류를 선언, 사업이 장기표류할 전망이다.

기아챔피언스필드 운영과 관련한 협의도 시설개선비 운영비 포함여부를 놓고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시설개선비 51억원을 두고 기아차는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시는 '비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폐쇄되는 상무소각장 활용방안도 인근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로 연내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올해 관련 용역을 발주, 활용방안 설문조사 실시 결과 소각장 부지에 복지문화센터 등 복합문화커뮤니티타운 건립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과 인접한 광주도시공사 소유 나대지(6만6000㎡)도 사업부지에 포함해 국립도서관과 전통문화정원, 야외공연장 건립 등을 주장하고 있어 여전히 답보상태다. 도시철도2호선 차량기지로 예고된 유촌동 부지도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는 주민대책위측의 요구핵심인 부지변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여서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조직위원회와 주관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의 위약금 협상 문제를 풀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FOM은 1년치 개최권료(4300만 달러)에 근접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F1조직위는 더 낮춰줄 것을 요구하며 지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위약금 문제는 2014년 12월 FOM측이 F1조직위에 2015년 한국 대회가 무산된 것은 중대한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불거졌다. F1 대회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개최했으나 개최권료 협상이 불발돼 2014년 대회가 무산됐고 민선 6기 들어 적자를 이유로 2015년과 2016년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반짝반짝…보성 빛축제에 오세요 제14회 보성 빛축제를 앞두고 14일 오후 한국차문화공원에 설치된 형형색색의 조형물 앞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빛 축제는 오는 16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한국차문화공원과 율포 솔밭해수욕장 등지에서 계속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일빌딩 총탄 흔적 100여개 확인 5·18 헬기 무차별 난사 밝혀지나

국과수 현장 조사서 발견
군당국 36년간 전면부인
계엄군 강경진압 논란 일 듯

광주시 금남로 1-1번지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총탄흔적은 5·18 당시 계엄군이 운용한 헬기에서 발사된 총탄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육안 조사를 통해 나왔다. 〈관련기사 6면〉

특히 탄흔은 불특정 다수를 살상하기 위해 기관총을 난사하는 '기총소사'로 인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논란이 다시 대두될 전망이다.

국과수 정밀 분석을 거쳐 헬기 사격으로 확정된다면 목격자 증언으로만 제기됐던 '계엄군 헬기 사격'이 36년 만에 입증되는 것이다. 군당국 등은 그동안 고(故)조비오 신부를 비롯한 광주시민들의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증언'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다.

5·18 기념재단은 국과수 현장 조사를 통해 지난 13~14일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총탄 흔적 130여곳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10층 내부 기둥에서 50여개, 천장 30여개, 바닥 50여개 등 130여점이 발견됐다.

조사를 한 김동환 국과수 총기안전실장은 광주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10층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은 당시 전일빌딩 높이와 유사한 건물이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헬기에서 발사한 총탄 흔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헬기 사격'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선 "기둥에 남은 총탄 흔적 가운데 허리 높이 난간보다 낮은 지점에 발생한 게 몇 점 있다. 10층 높이 이상에서 쏘지 않았다면 생길 수 없는 위치"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헬기가 금남로를 선회하면서 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탄환이 천정을 스친 흔적, 기둥과 바닥면의 총탄 흔적을 살펴보면, 헬기가 10층과 수평으로 날면서 쏘았거나 그보다 아래에서, 때론 위에서 사격을 가했다고 봐야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기총(기관총)소사인지, 소총 사격인지 현재 분명치 않으나 채증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기총소사의 경우 적을 한 발씩 쏘는 소총사격이 아닌 무차별 '난사' 의미가 강한 만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비선 의료진 청와대 프리패스 시술

최순실 국조 3차 청문회
대통령 의료체계 붕괴 확인
최씨 위증 종용 녹취록 공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 시술이 확인됐다. 특히 최순실씨가 고영태씨에게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육성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최씨의 단골 의사로 알려진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은 14일 청문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몇 번 (박 대통령이) 피부 트러블이나 순방 후 (얼굴이) 부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와 (청와대에) 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주치의나 자문의로 임명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의료시술을 확인한 것이다.

또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청와대에 '보안손님(검문검색만 받고 인적사항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방문자)'으로 2~3차례 들어가 대통령께 태반주사를 놓아드린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 자문의로 정식 임명되기 전 박 대통령을 상대로 시술을 했고, 일부 시술 사실을 대통령경호실 의무실에 통보하지는 않았다는 의혹을 모두 시인했다.

이와함께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씨가 귀국하기 직전 지인을 통해 고영태씨에게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최씨는 "고(영태)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몰아야 된다"며 "이성한(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도 아주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하지 않으면…안 시키면 다 죽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예약/문의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www.lottetour.com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세요

창립45주년 TTG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16년 연속수상! 명예의 전당 입성
TTG(Travel Trade Gazette) : 전세계 관광산업 전문가 및 기자단이 선정하는 관광업계의 노벨상
[2016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ccm 소비자중심경영(CCM)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

황금연휴 1/27 단1회 출발!
무안출발
중부지방의 특별한 매력
나고야!
선착순 8명 대한항공 비즈니스 좌석 제공(12/30 까지 완납시)
롯데관광 나고야 상품 공통특전! (일부 상품에 한함)
• 국적기 대한항공 이용
• 왕복 차량 수송 포함(광주-유스퀘어 터미널, 전주-월드컵 경기장)
• 아침도시락 제공 • 하루 한끼 특식(품격상품)
• 일본 최대규모 일루미네이션(빛축제) 관람
• 시라카와코 합장촌&작은 교토라 불리는 다카야마 관광
• 나고야의 상징 나고야성 관광
Japan. Endless Discovery.
알수록 가고 갈수록 그곳, 일본

★ 설원의 대파노라마 오쿠히다 로프웨이 ★
품격 ALL 포함 오쿠히다 로프웨이+일루미네이션 4일
[성인/소아] 1,649,000원 [유아] 100,000원 선택관광 없음
●오쿠히다(1)/나고야(1) ●1일 1특식(카이세키, 스키야키정식, 장어덮밥) 제공
●[특급] 오쿠히다 료칸, 나고야 힐튼호텔 숙박
정통/일급호텔 오쿠히다 로프웨이+일루미네이션 4일
1,449,000원 +3천엔 선택관광 없음 ●나고야(1)/오쿠히다(1)
●[일급] 나고야 국제 호텔, 오쿠히다 료칸 숙박

★ 일본 3대 게로온천 특급료칸 ★
품격 ALL 포함 특급료칸 수명관+일루미네이션 4일
[성인/소아] 1,649,000원 [유아] 100,000원 선택관광 없음
●게로(1)/기후(1) ●1일 1특식 제공(카이세키, 스키야키정식, 장어덮밥), 온천욕 2회
●[특급] 수명관 료칸, 기후 그랜드호텔, 게로온천 관광 및 숙박
정통/일급호텔 일본 3대 게로온천+일루미네이션 4일
1,449,000원 +3천엔 선택관광 없음 ●게로(1)/나고야(1)
●[일급] 게로 깃센칸호텔, 나고야 국제호텔 숙박, 게로온천 관광 및 숙박

★ 알뜰하게 떠나자 ★
알뜰 나고야 시내 관광 4일
1,299,000원 +3천엔 선택관광 없음 ●나고야(2)
알뜰 나고야 자유여행(항공권, 호텔) 4일
750,000원 선택관광 없음 ●나고야(2)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발권일/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임(자세한 사항 및 일정표는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선택경비(관광) 있음/없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안전경보단계] ❶여행유의 / ❷여행자제 / ❸철수권고 / ❹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매너팁]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음
여행경비 입금은 고객별 전용계좌로만 가능합니다.
●종로구청 : 일반여행업 제467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획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불편처리센터 : 1588-8692 ●여행출발지 : 인천 / 김해 / 대구 / 무안 / 청주공항 ●최소출발 10명(일부상품제외)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 버스, 훼리,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표, 입장권, 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